

건강 칼럼

난임, 전문의의 진단과 한방 치료로 극복할 수 있어

일 반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엔 1년 이내에 임신이 될 확률이 80~90%라고 한다. 피임 없이 1년 이상을 보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불임을 의심할 수 있다. 다만, 임신이 안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원 제범

강동구 아산본내과 아산본의원 대표원장

즉, 불임이라고 해서 임신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인 상담이 필요한 일시적인 난임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난임 증상은 35세 이하의 부부가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는데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는데도 6개월 동안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난임의 원인으로는 남녀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거나 원인 불명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부분 불임 또는 난임 상태가 되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여성 쪽이 40%, 남성 쪽이 40% 정도이며, 나머지 20%는 양쪽 모두에게, 또는 원인 불명이다. 여성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배란 장애, 성관계 불능, 자궁관의 폐쇄, 자궁 구조의 이상 등이 있다. 또한 남성에게 불

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고 연령, 흡연과 음주, 비만, 정자 이상의 원인이 되는 정계정맥류 등이 있다. 임신을 위해서는 조경과 양정에 합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조경이란 월경을 고르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아이를 임신, 출산하기에 적절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양정이란 정을 기른다는 의미로, 남성 생식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다지고 몸의 상태를 충실히 하여 건강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학에서는 조경과 양정에 합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한방 치료로 충분히 난임을 극복할 수 있다. 난임은 임신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부부의 사랑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체계적인 한방 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시험관 시술 전후 한방 치료를 통해 착상을 도와주고 임신 유지에 도움을 주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보다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한방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제언

'깜빡깜빡' '점멸신호' 의미를 알고 있나요?

운전자라면 심야시간 혹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서 깜빡깜빡 점멸신호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점멸신호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신호체계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점멸신호의 의미를 모른 채 단순히 "심야 시간이라 점멸등이 켜졌구나" 하고 별생각 없이 진입하고, 교차로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점멸신호는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 정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황색 점멸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통행

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에 통행하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로 처리되게 된다. 점멸신호가 깜빡거리는 교차로에서 "차가 없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나와 우리 모두의 교차로 '교통 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사소한 운전 습관부터 기억하고 실천하자. 이윤정 무주경찰서교통조사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메이웨더, 스타 유튜버와 대결 '무승부'



'50승 무패의 전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오른쪽)가 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로건 폴과 경기하고 있다. 메이웨더는 2300만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 폴을 상대로 진 것 같은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대결은 프로 전적이 남지 않는 3분 8라운드 시범 경기로 무승부일 경우 판정도 하지 않는다.

사설

미국에 대화 신호 보낸 북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먼저 설명을 하겠다고 만나자고 요청했고, 북한은 "잘 접수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은 3월 탈북자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미국과의 접촉에 나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의 대화 제안에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의 접촉 시도를 계속 무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5월 초만 해도 북한은 한미 양국을 향해 적대적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미국의 대화 제안을 받은 이후부터는 특별한 대외 메시지 없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

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인민 친화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2일 방한한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비무장지대 내 관문점을 비공개로 방문하기도 했다. 2019년 남북미 정상이 만났던 역사적인 장소를 미국의 정보 수장이 찾은 것이다. 이는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대북 전략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최근 북한은 한미 양국에 날 선 비난 담화를 냈었다. 그러나 최근 정중동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과연 북미 대화의 불씨가 트일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북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출범의 의미

전북 지역 종교계 지도자들이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전북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주평화연합(UPF) 전북지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북교구는 최근 '신통일 한국을 위한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전북도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7개 종단 대표와 종교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화 세계 실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신통일 한국 시대를 위한 활동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합수식을 통해 종교와 종파를 뛰어넘어 대화와 협력을 하기로 했다. 회장은 허종현 대한성공회 신부, 운영 스님(부안 단적사 주지), 그리고 김인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북 교구장 등 3명이 공동 추대됐다. 이상재 UPF 호남제주 회장은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사는 북한 동포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신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상호 존중과 화해, 협력의 두익 통일 가치관으로 하나가 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2017년 11월 70여 개 국 20여개 종단 대표와 500여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창립됐다. 이어 2018년 2월 한국 결성대회를 했으며 전국 5개 지구별로 결성대회를 개최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국가·민족·종교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인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중하다. 특히 종교 지도자 간의 대화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에 참여한 모든 종교인들은 먼저 초종교적으로 규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통일한국 운동은 한국에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일이다. 전북에서부터 모범적인 활동을 이뤄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